

1988년 8월 5일

5

- 1면 . 그림 「산동네 아이」
2면 : 안양의 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함께 그리고 보는 벽화
3면 . 그림을 배웁시다—걸개그림
4면 우리그림소식, 지역소식,
미술계 소식



발행인 홍대봉/발행처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발행일 . 1988년 8월 5일/주소 :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836-11/전화 44-8942

- 신바람 나는 그림
- 함께 누리는 그림
- 참 삶을 지향하는 그림

산동네 아이

정유정

장마철...

마치 물속에 사는 듯 습한 계절에도
가파른 산동네에는 물이 넘치지 않다.
좁은 골목길에 늘어져 있는 급수용 고무호스.
그 사이를 골라 딛는 아이의 좁은 어깨에도
생활의 고달픔이 이미 매어 달리고



안양의 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10여년 전, 안양천이 범람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던 여름이 있었다. 안양시 전체가 온통 물바다로 변하고 개천뚝이 무너져 도로가 개천으로 변하였다. 많은 사람이 물살에 휩싸여 실종되기도 하였다. 곳곳마다 죽석에서 결성된 구조반이 물살에 묶인 사람들을 구출해 내었다.

그날 길이 물에 잠겨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도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으로 변해버린 도로를 바라보다가 급류에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해내기도 했다. 엄청나게 내리퍼붓는 비와 물살에 물을 건널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들은 밤이 깊어 비가 그치자 물을 건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방법은 단 한가지, 힘을 합치는 것 뿐이었다. 건강한 남자들을 중심으로 스무명씩 서로 팔짱을 끼고 물을 건너기로 했다. 칠흙같은 어둠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으려고 “영차! 영차!” 소리

를 합창하며 도로를 따라 걸었다. 경사진 도로의 가운데는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온몸을 휘감아 당기는 물살,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으며 힘이 되는 것은 오직 양팔에 느껴지는 연대감, 그것 뿐이었다.

가까스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자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았다. 혼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일도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의 첫 경험이었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오늘, 안양은 변화하고 있다. 힘을 합치면 안될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려 13일 동안 계속된 안양전자 싸움을 보자.

공장 내에서 기계가 빼돌려지고 공장문이 닫히고 거리로 내몰려지면서, 장마나 더위 보다 더 무서운,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폭력에 맞서 싸우는 안양전자 노조원들(이들

은 대부분 먹여 살려야 할 남편과 자식이 있는 아주머니였다)과 이들의 피맺힌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지와 성원을 보낸 시민들은 며칠간 계속된 장마비 속에서, 그리고 살인적인 최루탄과 백골단의 폭력 속에서 더욱 뜨거운 단결력을 보였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었던가. 1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군중집회, 내 노래가 진정 저들에게 힘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는 노래, 함께 만든 만장과 대형 걸개그림이 휘날리고, 지칠 세라 매일 이어지던 북춤, 깃발춤, 지신밟기... 이름은 몰라도 가슴으로 만난 친구가 되어 어깨를 걸고 춤추고, 한뜻 한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은 이제 안양이 깨어있음이

다.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민중문화가 아닌, 매스컴을 이용해서 왜곡 보도되는 그러한 민중문화는 더더욱 아닌, 생활 현장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음이다.

민주안양 만세! 문화안양 만세!

삶과
함께 하는 미술

함께 그리고 보는 벽화

우리 생활주변에는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허전하고 썰렁한 빈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수 많은 간판을 잔뜩 몸에 붙인 벽과 보기 민망한 극장포스터나 모집광고를 더덕더덕 붙인 벽도 있습니다. 삶의 현상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있는 벽, 그 벽에 함께 그리는 벽화는 단순한 환경미화작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작년 8월 전국을 휩쓴 물난리에 운동네가 물에 잠겼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뒷골목에 그려졌던 벽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벽화는 단순한 환경미화 작업이 아니다

진저리나게 몰아쳤던 장마비가 물러갈 무렵, 안양천 뚝방에 천막을 치고 초등교사와 대학생들이 5일간 ‘어린이 놀이마당’을 열었습니다. 탈춤, 춘극, 민요부르기, 그림그리기 등의 다채로운 놀이 가운데 벽화그리기는 그림그리기의 연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동네청년과 관심있는 분들에게 벽화자료 슬라이드를 보이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마당 둘째날, 모인 어린이들이 ‘물난리난 우리집’을 도화지에 그린 후, 그중 잘 된 것을 골라 밑그림을 정해놓고 벽모양에 맞도록 축소하여 준비했습니다.

벽에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선뜻 허락해 주셔서 다음 날에는 밑그림을 벽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벽의 크기는 옆에 붙은 조그만 화장실까지 합쳐서 길이가 약 7m, 높이는 2m가 조금 넘었습니다. 어린이 7명이 도움팔을 주기 위한 대학생 2명과 벽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들의 그림을 갖고 벽의 모양과 크기에 맞도록 적절한 위치에서 연필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이들은 고무지우개 대신 팔뚝이나 손바닥으로 지우는 등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벽화그리기 둘째날은 미리 준비한 재료로 색칠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수성페인트, 안료, 붓 20자루, 주워 모은 종이컵 수십개, 바가지 2개 등이 준비물이었습니다. 처음 다루는 재료였지만 설명을 해주고, 기본색을 컵에 담아 놓은 후, 각자 원하는 색을 만들어 쓰게 했습니다. 물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는 잘 관찰하면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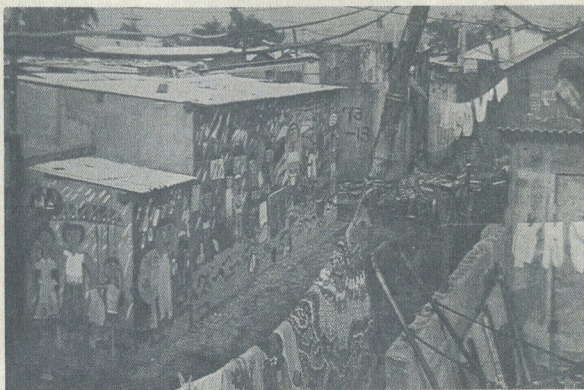
팔뚝과 손바닥으로 벽을 지우기도

벽에 붓을 대자마자 물감이 흘러내리고 옷에 묻기도 했

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매번 다루는 크레용보다 더 재미있어 했습니다. 햇빛도 따가운데 하루 3~4시간의 작업은 어린이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칙칙한 회색벽이 자신이 칠한 물감으로 점점 환해지고, 형상들이 드러나자 너무 좋아했습니다.

벽화그리기 세째날, 어린이 놀이마당이 끝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벽화의 윤곽은 거의 드러났습니다.

빗방울이 마치 폭탄처럼 보이고, 세간살림이 물위에 떠다니고 온가족이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항아리를 옮기는데 어린이는 우산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안양천 다리가 물에 잠겨 집으로 건너오지 못한 남매가 엄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습니다. 비가 세는 지붕을 막으려고 엄마는 지붕위에 올라갔습니다. 벽화를 찬찬히 보노라면 벽이 스스로 물난리 난 동네를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하안동의 골목길, 벽화를 그리는 어린이들의 모습과 벽화전경.

끔찍한 물난리의 경험을 그림으로 풀고

저녁이 가까와서야 마무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놀이마당을 맺는 순서의 하나로 벽화개막식이 있었읍니다. 뚝방에서 각종 놀이를 마치고 길놀이를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줄지어 좁은 골목길에 그려진 벽화앞에 모였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물난리를 겪은 어린이들인데, 박수를 치고 좋아서 야단칩니다. 동네어른들도 주위에 둘러서서 싱글벙글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작업을 한 어린이들도 보람을 느끼는 듯 매우 흡족해 하는 눈치를 입니다. 곧이어 그 조그만 뒷골목의 벽에 그려진 ‘우리그림’앞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힘차게 노래를 불렀읍니다.

우리주변의 그늘진 곳의 썰렁하고 허전한 벽일지라도 거기에 그려진 참다운 삶의 이야기는 현실의 삶에서 움크려진 어깨와 인상을 짝 펴게하고, 찌든 마음을 밝게하여 줍니다. 또한 가치있고 보람있는 삶을 지향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장의 벽에는 노동자들이, 학교의 벽에는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가벽면에도, 고아원, 양로원에도 이런 벽화가 그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신바람나는 일입니다.

▲ 정승각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나가는 힘은 일하는 사람들의 땀방울 속에서 나옵니다. 개개인으로 분리 되었을 때는 무엇하나 제대로 하기가 힘들지만 뜻을 하나로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갔을 때는 관악산만한 바위산도 거뜬히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서로 의지하고 나누어 누리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처럼 그림도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감동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다 창작(생산)하고 그것을 누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개그림이란

걸개그림이란 말 그대로 걸리는 그림입니다. 대중집회에서 열기를 한층 고양시키는 힘찬 그림, 신명나게 환관 어우러지는 대동제나 문화제등에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걸개그림이 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는 경사스런 결혼식장에서, 강연회에서, 종교의식 행사에서 등등 걸개그림은 대중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옥내, 옥외를 가림없이 활용되며 행사의 내용을 더욱 고양, 발전시킵니다.

걸개그림은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내용으로 채워지는데 행사주체의 목소리와 삶의 진실이 생생하게 표현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 벽화나 이조의 민화, 속화 등 조상들의 옛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미의식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오늘날 이땅에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대

중의 삶속에서 나타나는 희노애락이 짙게 표현되었을 때 그 그림은 더욱 많은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민중적 미의식의 바탕에 선 민족미술이며 곧 대중미술인 것입니다.

걸개그림의 장점

걸개그림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중들의 일과놀이 투쟁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광목천이나 캔버스천에 그려지므로 몇번만 접으면 부피도 작아져서 자유자재로 이동전시를 할 수가 있고 제작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감상하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미술형식입니다.

공동적으로 제작할 경우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여 전체의 의견을 추출해 내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기 때문에 타인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고, 자신의 잘된점과 잘못된 생각들을 구별해냄으로써 개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과정을 통해 서로에 친숙해 질 수가 있어 작업자체가 재미가 있고, 작업의 성과가 전체에게 돌려짐으로 인해 단결력을 높이고 삶에 있어서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적극적이고 열린 눈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참여의 폭이 넓혀진 민주적 작업방식을 통하여 대중은 뿌리 깊은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수가 있으며 주제적인 대중미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걸개그림의 준비물

바닥은 캔버스천이나 옥양목 등의 광목을 크기에 맞게 바느질 해 둔다. 이때 미리 색띠로 화면을 마무리해도 좋다. 물감은 물로 풀어 사용하며 마르면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물감이 편리하며 여러자루의 유화나 수채화용 붓이 필요하다.

밑그림을 위해서는 모조지와 연필, 목탄 등을 준비한다.



우리그림 회원들이 제작한 「해방광주-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걸개그림 그리기

1. 공동작업할 팀을 구성한다. (소모임, 조합등)
2. 그림의 사용목적과 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크기를 결정한다. 이때 전체 진행자를 정하고 충분한 의견교환 속에서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주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3. 진행일정, 작업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4. 실물크기의 모조지에 연필, 목탄으로 밑그림을 그린다.
5. 완성된 밑그림 뒤에 목탄칠을 하거나 먹지를 대고 실제 화면에 베껴낸다.
6. 옮겨진 밑그림을 수정보완 한 후 채색을 한다.
7. 채색이 끝난 뒤 먹선을 치거나 윤곽, 형태등을 강조한다.
8. 그림 가장자리에 색깔있는 천띠를 두르거나 용비늘을 부착한다. 바느질을 하거나 본드를 붙일 수 있다.
9. 완성된 후에는 반드시 다 함께 평가를 하고 기록한다.*용비늘 ;만장이나 깃발에 사용되는 세모꼴의 장식.

안양전자, 시민들과 함께 얻은 승리

지난 7월7일 안양시대 중심가인 삼원빌딩 앞에서 안양전자 노동조합원의 농성이 시작되었다 이는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공장을 오산으로 이전하려는 회사측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이 2개월여의 오랜 싸움끝에 마지막으로 내린 결단이었다. 삼원빌딩의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된 농성은 13일간 계속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었으며 지역내 민주노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여 7월 20일 마침내 승리를 얻어내었다.



● 사진은 안양전자의 승리대회모습. 앞에는 노조연합으로 제작한 「승리의 그날까지」가 걸려있다.

독자투고

우리, 가슴과 가슴으로 보듬어 —안양전자 농성현장에서

“노동자 천하지대본”이라고 쓰여진 만장이 바람에 펄럭었다. “노조탄압 위장이전 즉각 철회하라”는 목련 소리도 들렸다.

그들을 처음 보았을 때 단지 불쌍하다고 생각되었다. 얼마나 구호를 외치고 노랠했는지 목도 쉬고 지쳐있었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 공갈과 냉대, 그것도 모자라 불법공장임을 내세워 두시간거리의 오산으로 이전이라니……. 모여든 시민들이 혀를 찼다. 빗속에 연좌농성을 하거나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볼 때 나 한사람의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들이 자신의 것을 찾는 싸움에 함께 하고 싶었다.

끝까지 살아 남아야겠다는 의지, 자신들이 땀흘려 일한 온 삶터를 빼앗길 수 없다는 그들의 불끈 쥔 두 주먹에는 강인하고 끈끈한 삶의 애착이 있었다.

빗속의 강행군이였다. 하루가 다르게 많은 시민, 노동자, 학생들이 달려와 주었다. 성금과 우산, 이불이며 자리가라는 신문더미, 그리고 지지서명으로 아낌없는 사랑이 나누어졌다.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승리의 상징처럼 걸개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승리한다고 믿고 있

었다. 힘찬 구호와 노래소리, 밤을 지새우며 잠은 서로의 손과 손, 어깨와 어깨가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지신밟기 등의 연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장기자랑, 40여 노조의 똘똘 뭉침,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대책을 논의했던 토론회, 각단체의 성원 등등, 이루어야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비속을 뚫는 최루탄과의 싸움까지.

요즘의 삼원빌딩 앞은 무척 분주하다. 물놀이기구, 액세서리, 수박 등을 파는 노점상들도 활기차다. 이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가슴과 가슴을 보듬으며 위안했는지. 참사랑의 이웃임을, 언제고 부당함에는 과감히 함께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이웃임을 증명했다.

‘위장이전 철회’ 그 승리의 환호성, 펄럭이던 만장과 걸개그림, 안양시민의 함성, 14일간의 길고 험했던 역경을 이겨낸 안양전자조합원, 노동자, 시민,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의 민주노동자들이 머리채를 잡혀 패대기 쳐지면서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을 때
그대들은 어디에 숨어서 구경하고 있었는가
아직도 어디에 숨어서.
(임정남의 시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중에서)

▲ 안시민

형설수설

복잡 다양해진 이 사회에서 물질문명의 팽배와 “인간 소외”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작금의 세대.

황금의 포로가 된 인간들.

우리의 지성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예로부터 성(誠)과 경(敬)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인격의 척도로써 ……
또한 삶의 지표로써…….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황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고들 있지 않는가?

인간이 만든 수단에 의하여 우리는 철저히 지배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넘어야 한다. 험준한 산맥을……

이질화되고 고착화된 체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를……

서글픔을 아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서러움은?

있는 자는 득세하고, 없는 자는 숨쉴쉬는 이 세상, 이 천지가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인지……

못 가진 자는 목소리조차도 작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나는 부정하련다. 이 시대를.

그래. 인내하자!

그 언젠가의 그날을 위해……

광명의 그날까지……

▲ 한

여름 수련회 — 벽화놀이

회원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모두가 하나임을 느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수련회가 마련되었다

수련회의 내용으로는 공동체놀이와 장기자랑 외에 그간의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활 속에 미술을 결합시키기 위한 벽화작업을 준비한다. 벽화가 그려질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제정천의 다리 일부이다. 이 곳은 주민들의 놀이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써 메마른 콘크리트 다리에 전통민화풍의 벽화를 장식하여 환경미화에 도움을 주며 회원들에게는 미술의 적극적 위치를 체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련회의 일정은 8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간이며 장소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이다

가족과 함께 참가할 수 있다

사진전

우리그림의 큰그림방에서 8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는 6일말 부터 시작한 사진강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강좌 진행 기간동안 촬영한 사진들을 참가자들이 직접 현상, 인화하여 작품을 만든 것이며, 우리의 생활주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전시회 이후에도 이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진제작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8월 16일 부터 제2기 사진강좌가 시작된다.

미술강좌안내

우리그림은 그간에 진행하였던 상설강좌의 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더욱 생활과 가깝고 친숙한 것으로 과목을 개편하였다

이 강좌는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수강이 가능하며, 1달 수강료는 회원은 1만원, 비회원은 입회비를 포함하여 2만원이다. 개강일은 8월 16일이다.

과 목	내 용	기 간
사진	사진기초이론, 카메라조작법, 현상, 인화법	3개월 (주1회)
공예	목공예, 염직, 수직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3개월 (주1회)
수묵화	먹의 다양한 효과를 이용하여 생활 정서를 표현.	3개월 (주2회)

민미협 제3회 통일전

민족미술협의회는 요즘 들어 더욱 집중되고 있는 통일논의과정에서 조국통일의 본질을 올바르게 꿰뚫어 보고자 하는 취지 아래 제3회 통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1,2회 통일전을 통하여 전민족이 다함께 염원하는 자주적 민족통일 혹은 일상적 삶에 나타난 통일과 인간해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부분적으로는 관념적 구호주의와 급진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제3회 통일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조국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염원 의지를 표현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다

제3회 통일전은 8월12일 부터 25일 까지 그림마당 민에서 1,2부로 나누어 열린다.

JAALA 제3세계 미술전

<잘라> 제3세계 미술전이 지난 7월7일부터 7월18일 까지 일본 동경시에 있는 동경도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5회 안양 민요의 날

“시험없는 세상에 ...”

안양 민요연구회는 지난 7월16일 다섯번째 공연을 갖게 되었다

이번 민요의날은 현 제도교육에 죽어가는 내 동생이요, 조카이며 또한 과거의 내 모습일수도 있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한 인간이길 부르짖으며 죽어가는 상황을 창작민요부르기 노가바, 노래극을 통해 표현했다. 창작민요부르기는 ‘술개처럼 푸른 하늘을 맘껏 날기위해 저하늘로 간다’는 처절한 가사에 회원이 직접 곡을 붙인 “하늘 나는 술개처럼”과 청소년들의 고통의 무게를 표현한 “무거운 내 책가방”을 발표, 참석한 청소년들과 같이 불렀다.

노가바는 고교생들이 직접 “개똥벌레” “돌아와요 부산항에”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가사를 바꾸어 발표, 많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노래극은 점수따기 기계로 전락시킨 교육정책을 죽음으로써 부정하는 청소년교육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또한 교사 학생·주부가 주를 이룬 제2기 정기문화 강습생들이 직접 극을 만들고 공연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민요의 날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50명의 작가가 초대 출품하였다

<잘라 JAALA>는 일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이를 중심으로 제3세계의 미술가 회의가 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일본의 서구화 과정 속에서 미술이 점차 전위적 성격과 침략적 속성을 갖는 것에 대한 반성과 인식을 같이하는 미술가와 미술관계자, 애호가들이 모여 형성한 것이다. 이 회의 활동을 보면 제3세계 각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들의 역사와 현실을 조사하고, 제3세계 미술가와 미술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강연회, 토론회 등을 벌이며, 격년으로 제3세계 속의 한 나라에서 전시회를 열며, 현대 민중미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제3세계 미술의 제국주의적 현실극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렇듯 잘라전은 단지 국가간의 친선이 아닌 제국주의 미술에 대항하는 제3세계 미술운동이며 민중 차원에서의 국제적 연대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세계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잘라와의 유대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마지막 토론회를 비로 원해 장소를 이동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기회가 없었는가?” “우리 학교는, 나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죽음은 결국 나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현실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청소년 자신들의 열띤 토론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5회 민요의날을 정리하였다.

이번 민요의날은 지역대중과 민요의날이 어떻게 친숙해 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통해 계층이나 계급을 망라하고 모두에게 심각하게 다가서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행사평가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통일강연회

—분단을 뛰어넘어 자주화, 민주화로!

7월30일 안양공업전문대학 강당에서 문익환 목사의 통일강연회가 있었다. ○ 강연회는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이고, 어떻게 하면 경직된 반공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고 민족통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북한방문 슬라이드상영과 북한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후원회원모집

우리그림의 뜻에 동의하시는 여러분의 후원금은 우리그림사업에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

우리그림의 운영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월회비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구좌

국민은행 209-01-0406-531
조흥은행 503-6-220777
경기은행 64-37-845634
예금주 박찬웅

한이비인후과

전문의학박사
한경남

☎ 52-9269

위치/안양시 호계동 995-5
(군포 신사거리 농협 2층)

BARUNSON

팬시기든

☎ 46-3461

위치/안양시외버스정류장 앞

줄서비로손

명주

생활용품전문점

소가구 도자기 그림
대표/지정민

☎ 43-5026

안양1동674-117 신영순병원 앞

우리그림내 종합기획실
빛살무늬가 문을 열었습니다.

- 달력·카드·연하장 주문제작 판매
- 각종기념품·생활미술품제작 판매
- 유치원용품 및 학습지 주문제작
- 광고전단·명함·마크·로고디자인 및 주문제작

☎ 44-8942 우리그림내)